강이야기 · 5
River & Culture

우리 하천 우리 물고기

천연기념물 190호 황쏘가리

이 학 영 | 우리협회 이사
한국자생어종연구협회 회장
(koreafish@hotmail.com)

학명 : *Siniperca scherzeri STEINDACHNER*

지역 방언 : 황쏘가. 금잉어. 금쏘가리 등

분류 : 농어목 꺽지과

자생 수역 : 서·남해로 흐르는 큰 하천에 분포

주 서식장소 : 물이 맑고 흐름이 빠른 바위 틈새

번식기 : 5~7월

크기 : 60㎝ 내외

우리 국민들에게 쏘가리라는 민물고기는 귀에 익고 무척 친밀한 어종이다. 그러나 황쏘가리의 생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다. 이는 그 개체수가 적어 일반인들의 눈에 띄는 일이 드물고 이를 사진이나 글로 소개해 준 자료도 과거에는 적었기 때문이다. 황쏘가리가 검은 얼룩무늬를 가진 농어과의 보통 쏘가리와 완전히 동일한 어종이라고 하면 의아해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 금빛 몸을 자랑하는 친구도 일반 쏘가리가 색소결핍증인 알비노현상으로 검은 체색소의 반 이상이 없어지거나 완전히 나타나지 않을 때 생겨나는 자연생태계의 돌연변이다. 즉 본래의 쏘가리의 체색인 지느러미에 나타나는 검은 깨반점과 몸통에 널리 퍼져있는 흑갈색의 모자이크형 반점들이 색소부족으로 없어지고 여기에 바탕색만 보이는 것이다.

계류낚시와 민물고기 요리 등으로 인기 있는 원조 흙빛 쏘가리와는 달리 황쏘가리는 우리 하천에서 자생하는 여느 일반 어종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대우를 받고 있으니 바로 천연기념물 190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것이다. 보통 쏘가리는 매일 수많은 숫자가 전국의 여러 하천에서 낚시와 그물 등으로 두루두루 포획되어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구미를 채워주고 있으나 황색 옷을 걸친 동족 황쏘가리는 법으로 보호되고 또 천적이 별로 없는 사나운 육식성 어종이다 보니 담수수계의 황제로 군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황쏘가리의 부모, 형제, 자식들 중 확률상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 쏘가리들이다. 즉 일반 쏘가리에서 황쏘가리가 나오고 황쏘가리 후손에서도 일반 쏘가리가 나오게 된다. 같은 배에서 나온 다른 놈들은 조상대대로의 색상을 지닌 업보로 잡히면 십중팔구 황천행이지만 때깔 좋은 이 녀석은 천연기념물이라는 어마어마한 감투로 보호되어 있다. 漢詩에 나오는 구절대로 본시동근생(本是同根生 : 본래 한 뿌리에서 태어남)인데 천양지차이다. 옛날 노비와 황제의 차이라면 지나친 비유일까? 생사존망의 기로가 몸 색 하나에 좌우되니 일반 쏘가리로서는 이 어찌 억울하지 않겠는가.

천연기념물로서 황쏘가리의 가치와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를 낳게 하는 일반 쏘가리 자체도 마땅한 대접을 해주어야 이치에 맞을 것이다. 적어도 황쏘가리가 많이 나오는 수역에서만이라도 쏘가리 포획기간 조절 등 적절한 대안이 있어야 하겠다.

한강과 한탄강의 상류에서 나오는 황쏘가리는 체색이 전신 모두 황금색인 개체가 많은데 반해 중류지역 이하에서는 황금색 바탕에 희끗한 얼룩무늬가 섞인 반쯤 황쏘가리인 개체도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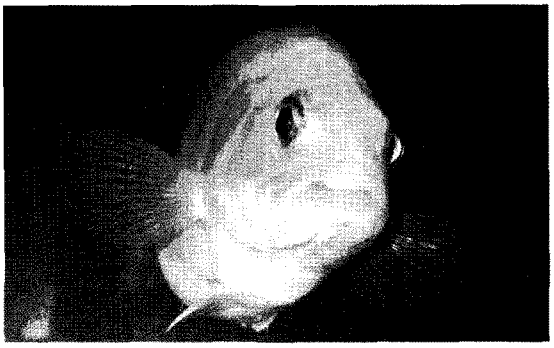
우리나라 토종 담수어 중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상을 자랑하는 황쏘가리는 순도 99% 이상의 천연 황금빛을 자랑한다. 이 현란한 색태는 금붕어, 비단잉어 등 인공적인 손이 가서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체색을 띠는 관상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품으로 빛난다.

몸은 일반 쏘가리와 마찬가지로 길고 옆으로 납작하며 꼬리지느러미 끝이 부채처럼 둥글다. 식성은 육식성이다. 주로 물고기와 갑각류 등을 잡아먹는다. 돌과 자갈이 어우러진 큰 강의 중·상류에서 5~7월경 산란한다. 통상 어린 치어에서는 황쏘가리를 발견하기 어려운 데, 이는 점차 성장하면서 검은 색 무늬가 없어지면서 황쏘가리로 변하는 개체들이 많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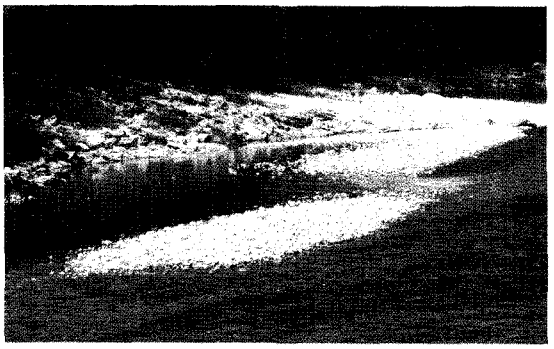
성숙한 성어는 전장 30~50㎝ 정도이나 때로는 60㎝ 정도의 큰 개체도 나타난다. 천연기념물인줄 알면서도 포식하는 인간들도 종종 있다고 하니 이 어종을 더 연구하고 보존하여 지역에 따라 깃대종으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그림 1〉 황쏘가리
황쏘가리가 금빛 찬란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희소한 가치로 인해 국가에서는 천연기념물 190호로 지정하여 그 몸을 귀하게 대접해주고 있다.

〈그림 2〉 일반 쏘가리
황쏘가리와는 완전히 동일한 종이다. 몸의 색이 전혀 달라 억울하지만 천연기념물이 아니라서 인간의 세치 혀끝을 회, 매운탕 등으로 즐겁게 해주고 있다.



〈그림 3〉 정면에서 보는 황쏘가리의 위용
수년전부터 인공번식에 성공하여 관상어로 개발을 하고 있으나 살아있는 먹이를 먹는 육식성이라 아직 보편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림 4〉 서식처 복원 개념
사진은 황쏘가리가 출몰하는 인제 내린천의 지류이다. 쏘가리와 함께 이 어종이 살게끔 하천을 복원하고자 할 시에는 큰자갈, 바위와 여울, 소 등이 어우러진 유속이 빠른 곳이 서식지임을 고려해야 한다.